

## 굳게 닫힌 동아리연합회

### ‘임기까지 최선 다해야’ 비판

You&I 동아리연합회(회장 홍영기, 이하 동연) 사무실 문이 평소 닫혀 있어 동아리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더불어 동연과 동아리인 사이의 소통의 문도 닫혀버렸다는 지적이 많다.

동아리인들은 동연 사무실에 물품 및 장소 대여 등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 찾아간다. 그러나 동연 사무실은 대부분 잠겨 있거나 임원이 자리를 비운 채 남겨져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 동아리에서는 연습을 위해 시청각실을 빌리려 했지만 동연 사무실이 닫혀 있어 빌리지 못해 복도에서 연습을 한 사례도 있었다. 동아리인들은 동연과의 소통은 물론 원활한 동아리 활동을 위한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없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모 동아리 회장 A씨는 “항상 문이 닫혀있어 동연과 동아리인들의 의사소통이 더 안 된다”며 “사무실만 열어도 동연과 동아리인의 교류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동연 사무실이 평소 잠겨있는 배경에는 부회장을 비롯한 동연의 임원

대수가 탈퇴한 것도 한 몫했다. 임원수가 부족해 사무실이 비어있는 경우가 많아졌고, 결국 피해는 동아리인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열린 대동풀이도 동아리인들에게 제대로 홍보되지 않았다. 대동풀이 일정에 대한 안내는 동연 임원이 동아리 회장단에게 문자를 돌린 것이 전부였다. 자연스럽게 대동풀이에 동아리인 참여는 저조한 수준으로 머물게 됐다.

공연분과의 한 학생은 “그간 대동풀이가 열릴 때면 동연이 동아리방에 팸플릿도 나눠주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했는데, 올해 동연은 제대로 홍보를 하지 않아 대동풀이가 열리는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일부 동아리 회장은 대동풀이가 열리는 사실조차도 전달받지 못했다. 동아리 회장 B씨는 “대동풀이가 열리는 사실을 전혀 공지 받지 못했다”며 “동아리인들의 가장 큰 축제인 대동풀이조차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현 동연이 얼마나 소통의 문을 닫고 있는지 보여준다”고 말

했다. 앞선 데 덮친 격으로 대동풀이 일정이 기획사 측과의 일정 조율 문제로 갑작스레 늦춰져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또 다음달 둘째 주에 예정된 2012 학년도 동연 선거도 제대로 공지되지 않았다. 각 분과의 회장들을 통해 취제한 결과, 지난 25일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동연 선거에 대해 들은바가 없다는 회장들이 다수였다.

홍영기 동연회장은 “아직 선거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대동풀이에 대해서는 “회장단 중심으로 알리면 동아리에 전파가 이뤄질 것이라 생각했는데 잘 되지 않은 것 같다”며 “홍보물을 만들었다면 조금은 달라졌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역대 동연과 달리 대동풀이에 참여·비참여에 대한 메리트와 불이익이 없었던 것도 참여저조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홍 회장은 소통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아리인 사이에서는 이미 현 동연 사무실의 굳게 닫힌 문처럼 소통의 문도 닫혀있다는 지적이 많다. 동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소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현 수습기자



겨울이 성큼... 쌀쌀한 등굣길

지난 24일 정문 등굣길에서 학생들이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따뜻한 옷을 갖춰입고 등교하고 있다. 매서운 겨울추위 같은 시련과 도전을 극복하며 우리들의 경쟁력을 키워나간다.

## “법적분쟁에 도전 결심... 사회정의 실현할 판사가 포부”

### 인터뷰 사법시험 최종합격한 강경민씨

제주대에 7년 만에 처음으로 사법고시 합격자가 나왔다. 영광의 주인공은 2010년 법학부를 졸업한 강경민(28·대학원 행정학과)씨. 강씨의 성과는 열악한 상황을 딛고 꿋꿋이 공부한 끝에 이룬 것이어서 더욱 값지다. 그러나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는 그에게 이번 사시 합격은 시작에 불과하다. 직접 강씨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처음 합격했다 소식을 들었을 때 믿기지 않았어요. 아직도 가끔 열떨 뻔하죠. 많이 부족한데, 큰 선물을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는 학부시절 3학년 때부터 사법시험을 준비했는데, 2년 떨어진 끝에 합격하게 됐다. 대단한 업적에도 그는 자만 없이 침착하게 미래를 구상 중이었다. 그런 그가 처음 사시 준비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개인 사정 때

문이다. 어려운 집안형편 때문에 법적 분쟁에 휘말린 적까지 있었다고 한다.

“힘을 기르고 싶었어요. 그때부터 법조인이 되겠다는 목표를 갖게 됐죠. 집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생각처럼 공부도 수월하지 않은 않았다. 제주도에서 상당 기간을 준비했는데, 주변에 같이 준비하는 사람이 없었다. 외롭고 버거운 나날이었다. 그는 책을 보며 혼자 공부하면서도 모르는 게 있으면 교수님께 여쭙거나 인터넷을 통해 해결하는 식으로 공부를 계속 해나갔다.

그는 사시 합격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갈 길이 많이 남아 있고,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다.

“사시 합격은 예선전이죠. 이제 사법 연습원에 들어가면 합격자들 사이

에서 다시 경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더 어려운 과정이라고들 하더라고요. 집중하고 노력해서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생각입니다.”

그 뒤의 청사진 역시 준비해 둔 상태다. 그는 이후 3년간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경력을 쌓을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 있다고 한다.

“전에 우리 집이 법적 분쟁에 휘말릴 때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구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어려운 이를 돕는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고 싶습니다. 승소 패소는 둘째치더라도, 돈이 없어 변호사를 구하지도 못한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조력해 주고 싶다는 강경민씨. 이후 그가 최종적으로 되고 싶은 것은 판사다. 공정하고 사회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되고 싶다는 게 그가 지향하는 최종 목표다.

그는 또 사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



사법고시에 최종합격한 강경민(대학원 행정학과)씨.

게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제주도는 사시 준비한다고 하면 안 좋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 스스로도 많이 불안할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자신을 믿고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김소영 기자

## 제주대 도서대출 문학류가 가장 많아

올해 학부생들이 중앙도서관에서 대출한 책이 1인당 한 달 평균 0.56권으로 조사됐다. 이는 중앙도서관이 제공한 ‘주제별 대출반납 현황’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25일까지 학부생 대출 권수(6만1065권)를 학부생 수(9941명)로 나눈 후 한달평균을 구한 결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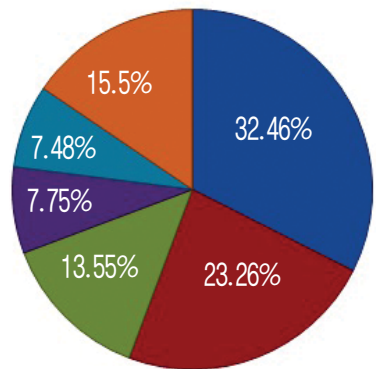
학부생이 올해 가장 많이 대출한

도서는 문학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학은 2만407권이 대출됐으며 사회과학(1만3047권), 역사(4272권), 기술과학(4253권) 순으로 뒤를 이었다.

대학원생, 교수, 조교의 1인당 대출 한달 평균은 각 0.78권(총 1만 19권), 0.30권(총 1891권), 0.57권(총 663권)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가장 많이 대출한 도서는 사회과학(각 2682권, 464권, 180권)이다.

한편, 올해 중앙도서관에서 가장 책을 많이 빌린 학생은 강윤정(메카트로닉스 1)씨로 지난 25일 기준 254권을 대출받았다.

강윤정씨는 “독서는 꾸준히 읽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간이 될 때마다



중앙도서관 분야별 대출비율. ■문학 ■사회과학 ■기술·순수과학 ■역사 ■철학 ■기타

조금씩 읽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현 수습기자

길이 없으면 길을 찾고  
찾아도 없으면 만들면 된다



금강산에서 직원들과 함께 한 아산 정주영

# 青年不敗

주요사업	요 강	선발 방식	신청 기간
정주영 창업 캠퍼스	■창업 공간 제공과 교육 지원 ■엔젤투자자 연계 지원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3차 심층심사	수시접수
해외 인턴사원 파견	■모집인원 : 연 1000명 (17기 200명) ■파견지역 :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중동, 아프리카 등 ■파견기간 : 6개월 (17기 : 2012년 1월 ~ 2012년 6월)	■1차 서류심사 ■2차 최종면접	2011.11.14 ~ 11.23
해외 봉사단원 파견	■모집인원 : 연 500명 (17기 100명) ■파견지역 : 아프리카, 동남아, 인도, 중국(서부), 러시아(시베리아) ■파견기간 : 1년 이내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3차 최종면접	12월 중 공고 예정
비영리 공익단체(NGO) 창업 아카데미	■모집인원 : 연 200명 (17기 50명) ■시기 : 매 분기 1회 ■기간 : 4박 5일 ■우수 수료생 해외 NGO 견학 파견	■1차 서류심사 ■2차 최종면접	2011.11.14 ~ 11.30
창업경진대회	■EBS '브레인 빅뱅' 청년 창업 오디션 -방영일시 : 2011년 11월 18일 ~ 2012년 1월 6일(금) 19:50 ~ 20:30	■최종 우승자에게 1억원의 창업자금 지원	
아산나눔재단 사무국 직원 공개채용	■경력 및 신입직원 ■인턴직원 ■자원 봉사자	■1차 서류심사 ■2차 최종면접	2011.11.14 ~ 11.30



사설

국립대 재정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반값 등록금이 사회적, 정치적 이슈로 떠오른 이후, 국립대학 재정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고 있다. 특히 기성회계 제도와 운영에 대한 공격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립대학 재정에서 기성회계가 지니는 실제적 의미는 간과한 채, 명분론에 입각한 비난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성회계 제도가 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은 아무도 부정하지 못한다.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대학 재정을 보충하는 것이라는 법적 의제에 의하여 징수되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기성회계 제도의 발단에 근거한 사고방식으로, 지금과는 상황이 상이 했던 1960~70년대, 아주 오래 전 이야기이다.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기성회계 제도는, 관행적 근거 위에서 '등록금' 과 함께 수익자에게 부과되는 비용 부담에 기초하는 것으로, 특히 국립대학 재정 중에서 대학 자체의 자율적 운용이 보장된 영역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법률적 근거가 분명했다라면 더욱 좋았겠지만, 이런 저런 사정으로 그 동안 기성회계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이 적지 않다.

대학이 반값 등록금을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 문제는 대학 재정의 규모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일 뿐이다. 사립대학들이 막대한 재정 유보

금을 쌓아두는 것과 국립대학의 사정은 너무나 다르다. 재정을 축소하면서, 국립대학의 교육, 연구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라는 것은 언어도단의 논리라고 할 수 있다.

대학 재정의 규모 확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대학 재정의 자율성이라는 점도 망각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 국립대학 재정은 크게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로 구성되는데, 일반 회계의 경우 강력한 중앙통제로 대학 자체의 재정 자율성은 사실상 상실되어 있다. 기성회계가 그나마 자율성의 숨통을 열고 있는 것이다.

교과부는 예전부터 이른바 formula funding이라는 자원배분 방식을 자주 언급하여 왔다. 객관적 지표에 의한 자원 배분, 내부적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formula funding의 기본 발상은, '분권'이라는 관점에서 주목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자원 배분의 기준이 되는 formula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하는 점이다.

구조적 환경이 열악한 지방 국립대의 실정, 이로 인한 대학 교육의 중앙 독점을 막기 위한 진정한 노력이 반영된다면, formula funding 방식도 고려의 여지가 없지 않다. 반값 등록금이라는 이슈가 발전적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대학 재정의 규모 확대와 재정 자율성을 보장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사회적 토론이 전개되도록 해야 한다.

절제가 필요한 수업중 스마트폰 사용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가입자가 2000만명을 넘어 서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 국민 10명중 4명꼴로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아이폰으로 촉발된 스마트폰 시대의 도래가 미치는 영향력은 혁명적일 만큼이다. 스마트폰으로 하루를 시작하여 스마트폰으로 하루를 정리하고 마감하는 삶이다.

스마트폰의 확산은 개인의 일상생활과 삶의 방식 나아가 기업이나 사회전체의 시스템을 바꾸고 있는 데 영향을 주고 있다. 학교교정이나 빈 강의실 길거리의 커피숍에서도 스마트폰에 손을 떼지 못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혼란 일상의 모습이다. 사회 전반에서도 스마트폰의 확산과 스마트비즈니스 스마트마켓팅을 위한 인프라가 확충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우리학교에서도 스마트폰 보급과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리대학에서도 막대한 비용을 들여 캠퍼스 전체 어디서나 모바일 인터넷이 가능하도록 인프라의 확충과 학생들을 위한 각종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비스하고 있다. 스마트폰은 스마트 리닝과 자료 검색용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학사정보의 쌍방향 소통과 SNS를 활용한 친구끼리의 의사소통 면에서도 대학 내에서도 매우 요긴하게 사용되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의 사용은 중독성이 있을 정도이다 보니 집중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스마트폰에 매여 있는 시간이 많다. 길거리나 커피숍에서 보는 일상의

모습처럼 우리대학 강의실에서도 수업중 일부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머리를 푹숙이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인터넷 검색, 친구끼리 문자 보내기 등으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수업이 재미없어서 또는 공부하고 싶지 않아서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있을지 모르지만 열혈 청년들이 수업시간에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모습은 보기에도 몹시 좋지 않다. 교수를 포함해 강의자들은 학생들이 수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수업준비를 해야 함은 물론이다. 수업보다는 딴 짓에 몰입하는 학생들을 내버려 두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이다.

벌써 2학기도 마무리 하는 시간으로 접어들고 있다. 캠퍼스에서 보내는 4년여의 시간은 우리 학생들 인생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시간이다. 다시 오지 않을 청년의 귀한 시절이다. SNS와 트윗이 나름대로의 역할과 기능이 있지만 친구들끼리도 마주보며 대화하고 토론하고 고민을 나누는 등 대면하여 소통하는 삶이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 나아가 수업 중에는 수업에 열중하고 자기 자신을 학문으로 도야하는 시간으로 삼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 대학에서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책임져야 한다.

수업 중에 학생들의 인생을 바꿀 메시지는 오지 않는다. 강의와 실험, 토론에 열중할 때 서서히 우리를 바꿀 시그널과 희망이 나오는 것이다. 모두가 수업에 열공하고 또한 교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강의하는 우리대학의 모습을 소망해본다.

외국인 학생에 ‘대변인 역할’ ... 의식개선 운동도 병행

인터뷰 유학생 복지운동 'KFC' 펼치는 대학생들

“외국인 유학생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해결하고 싶습니다. 외국인 학생도, 한국학생도 누구든지 똑같은 권리로 배울 수 있는 제주대를 꿈꿉니다.”

대학 내에서 소외받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 복지증진 운동을 벌이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 화제다. 주인공은 중국인유학생 천천(사회 2)씨와 김지연·윤승빈·장유지·진희중(사회 2), 정민용(사회 4)씨.

이들은 한국학생 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페이스북’을 통해 일명 ‘KFC’라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달 10일부터 기획된 ‘KFC’ 운동은 ‘Korean students + Foreigner students = Cheju university’의 약자로 한국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이 함께 만들어가는 제주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유명 패스트푸드점의 이름인 ‘KFC’를 빌려와 이름을 재미있게 지었다고 한다.

“주변의 중국인유학생 친구들이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자

신인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봐왔어요. 그들의 어려움을 알려서 대학 구성원들이 다함께 유학생들의 복지와 권익을 위해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페이스북은 그룹을 만들면 주변 친구를 초청할 수 있는 방식이라 인맥 중심으로 친구관계가 구성되는 대학 내에서 전파속도가 빠르다. 이들이 구성한 페이스북 KFC 그룹에는 53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고 그중 30%정도는 외국인 유학생들이다.

“페이스북이 갖고 있는 인맥의 망을 통해 앞으로 KFC 운동이 더 확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페이스북에 올라온 외국인 유학생들의 어려움을 보고 많은 대학구성원들이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이들은 외국인 유학생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있다. 유학생들의 목소리를 끌기위해 총유학생회 부회장과 국제교류본부 담당 등도 만났다. KFC운동이 점차 알려지자 중국인유학생회 측에서는 직접 인터뷰를 요청해오기도 했다. 이렇게 이들이 올린 글들은 댓글로 지지를 받고, 페



유학생 복지증진운동 'KFC'를 펼치고 있는 학생들이 KFC 문구를 손에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유지, 김지연, 진희중, 천천(사회2)씨.

이스북 회원들에게 ‘좋아요’라는 버튼을 통해 추천을 받는다.

“직접 외국인 학생들과 학교 측을 인터뷰해보니 확실히 서로 입장차이가 있는 것 같았어요. 페이스북에 한국학생, 유학생, 학교측의 목소리를 모두 담아내며 커뮤니케이션의 장벽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KFC 얼굴서명’도 받고 있다. 얼굴서명은 대학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KFC’가 적힌 문구를 들고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이다. 얼굴서명은

외국인 유학생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KFC 운동에 동참한다는 의미이다. 40명 가량의 대학구성원들이 얼굴서명을 통해 KFC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제주대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슬로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학생들이 외국인유학생과 함께 캠퍼스 생활 누리는 것도 하나의 좋은 글로벌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외국인 유학생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이야기를 먼저 건네줄 수 있는 용기를 내셨으면 합니다.”

고용희 기자

‘스파산업’ 심포지엄 내달 2일 개최

물산업 인재양성센터 주최로

제주의 스파 산업 발전 현황을 점검하고 논의할 국제 규모의 스파전략 심포지엄이 개최된다.

물산업인재양성센터(센터장 이선주)는 다음달 2일 제주시 연동 소재 더호텔제주에서 인도네시아 발리스파협회 톨루 잇자자 회장, 일본 미쓰이엔지니어링 마루야마 토모노리 수석연구원 등 해외 유력 인사들과 도내의 스파 전문가들을 초청, 제주 스파 산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국제 스파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제주 스파의 현황과 경쟁 요소를 정밀 진단하고, 실천적인 대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세계적인 관광지 발리의 스파산업 성장 경험과 교훈, 일본 스파

업계의 새로운 변화 움직임에 대한 고찰이 제주의 향후 전략 모색과 관련돼 주목되는 내용들이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서인수(제주테크노파크) 연구부장이 ‘제주 스파산업 현황과 경쟁력’을 한정숙(㈜스파리움) 대표가 ‘제주 스파의 글로벌리제이션 전략’을 발표한다. 이어 정은영(한라대학) 교수가 ‘하이드로테라피 산-학 연계 교육 사례’를 윤혜영(제주스파인) 원장이 ‘제주형 스파 발전을 위한 전략’을 이연희(혜전대학) 교수가 ‘스파 산업 발전을 위한 당면 극복과제’를 각각 발표한다. 또 이현주(생명화학공학) 교수와 학생들이 개발한 테라피 소품을 선보이는 스파 체험 코너와 스파 관련 상품 전시 행사도 진행된다.

인문대, 대만 중흥대 문하원과 학술교류 협정

인문대학(학장 김석준)과 대만 국립 중흥대학교 문하원(원장 왕밍거)은 대학간 상호협력과 활발한 국제교류를 위한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은 공동학술연구, 방문학자 교환, 공동학술회의 개최 및 연구정보의 교류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양 대학은 이번 협정을 통해 향후 교환학생 파견 등 교류를 목표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중흥대의 문하원은 우리나

라 학제로는 인문대학에 해당한다.

오수민씨 학술대회 수상

오수민(전산통계 박사과정)씨가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안동대에서 열린 2011년도 정보과학회 추계 학술 발표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오수민 전산통계 박사과정

제주대신문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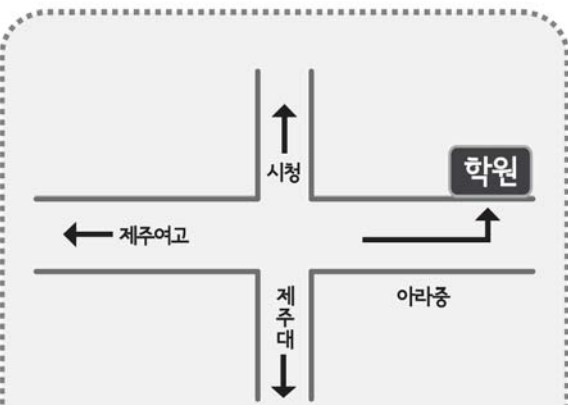
발행인·총장 허항진 편집인·주간 고호성 편집국장 고용희

우)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전화안내 064)754-2114

제주대신문 편집국 064)754-2277-9 제주대 미디어<JUMP> news.jejuun.ac.kr

운전면허 제주대학교 발전후원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매주 운전면허 기능시험 자체 실시
- ▶제주시 전지역 셔틀 운행 : 제주대↔학원 셔틀 운행
- ▶주말교육가능
- ▶제주여고입구 건너편(다리) ↔학원셔틀버스 운행



제주시 아라2동 1320(제주여고 입구 동쪽) ☎ 755-9900

제31회 백록학술상 현상 공모 실시 안내

언론미디어센터에서 제주대신문 창간 57주년을 맞이하여 제31회 백록학술상을 다음과 같이 현상 공모하고자 합니다.

- 행 사 명 :** 제31회 백록학술상
- 응 모 자 격 :** 제주대학교 재학생(대학원 박사과정은 제외)
- 응 모 분 야 :** 일반논문 A4용지 10매~30매 내외(인문, 사회, 자연과학, 공학분야: 이미 발표된 논문이나 학위논문 제외)로 작성하고, 논문 출력물과 논문 파일은 CD로 동시 제출, 제출된 원고는 반환되지 않음.
- 시 상 :** 학부생/대학원생 (당선 : 총장상 및 상금 50만원, 가작 : 총장상 및 상금 30만원) ※ 수상인원은 논문 수준에 따라 변동 가능
- 접 수 마 감 :** 2011년 12월 12일(월) 18:00까지
- 접 수 장 소 :** 언론미디어센터 행정실(취업전략본부 3층)
- 당선작발표 :** 2012년 신년특집호(1월 4일자)
- 심사및시상 :** 심사위원회에서 추후 결정

제주대병원 소식

로봇수술 국제 심포지엄 개최



제주대학교병원(병원장 강성하)은 지난 28일 병원 2층 대강당에서 도내 최초로 도입한 로봇 수술 관련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국제심포지엄에는 한국, 홍콩,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타이완 등 아시아 각 국 비뇨기과 분야 다빈치 로봇 수술기 사용 의뢰진 10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아시아계 의사뿐만 아니라, 미국의 유명 병원인 핸리포드 병원이나 유편병원 등 로봇 수술 경험 이 많은 의사들도 참석해 시술 경험을 발표 했다.

제왕절개 분야 인센티브 지원금

제주대학교병원(병원장 강성하)이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의료 질이 높은 병원에 인센티

브를 제공하는 ‘2011년 가감지급사업’에 제왕절개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지원금을 받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에서는 제왕절개 분만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및 연간 분만건수 200건 이상인 종합병원 대상으로, 94기관(상급병원 44, 종합병원 50)의 총 진료비 890억원, 7만645건에 대해 평가가 진행됐다. 제왕절개분만은 산모와 태아의 특성(위험도)을 반영해 병원별로 제왕절개분만을 얼마나 시행하는가를 평가했으며, 분만 진료 성적이 좋은 24개 병원에 5억8000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이다.

제주 암환자 제주시 진료받는 비율 증가

제주지역 암환자가 서울 등 외부로 나가지 진료료 받는 환자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지역 암센터(소장 장원영 교수)에서는 건강보험공단 중증 암환자 등록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06년 3월 지역암센터 지정 이후 제주지역 암환자 자체충족률이 많이 높아졌다. 암센터 지정 이전 2005년도 자체충족률은 52.6%였으나, 2010년도에는 21.4%가 증가한 74%에 달했다.

이번 결과는 2006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주지역암센터를 지정 받아 제주 도민들의 암정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제주지역암센터 장원영 소장을 비롯한 대장암연구팀이 국가암프로젝트에 선정돼 15억원 규모의 국비지원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는 등 암 관련한 다양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 발암성 물질 실험·실습실서 과다 검출

## 총 7곳 기준치 초과… 자체정밀조사키로

교내 일부 실험실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대학본부의 의뢰를 받아 산업보건환경건설팀이 교내 실험, 실습실의 공기질을 측정해본 결과 총 14곳 중 7곳에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 기준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실험실 공기질 측정 지표는 포름알데히드(HCHO), VOC(휘발성 유기화합물),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스티렌, 자일렌, CO2, 석면으로 총 9가지다. 이 중 학내에서 발견된 것은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에틸 벤젠, 자일렌, CO2였

다. 이번 조사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가장 많이 검출된 곳은 노동부 사무실 공기 관리지침 기준치의 6.7배,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12.6배, 에틸 벤젠은 1.6배, 자일렌은 2.9배, CO2는 1.05배다.

강창희 교수(화학과)는 학내 발암성 물질 검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포름알데히드는 유독성 물질 중에서도 특히 독성이 심각한 물질”이라면서 “기침, 설사, 피부질환 등 신체적 자극 뿐만 아니라 정서적 불안정 등과 같은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강 교수는 “심각한 경우 죽음까지 이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 외에도 벤젠이나 포름알데히드 등을 통칭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경계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발암물질이다. 자일렌 역시 구토, 현기증, 호흡 곤란을 일으켜 심할 경우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독성물질로 알려져 있다.

총 4개 기준에서 기준치 초과 판정을 받은 실험실 담당 교수는 실험실에서 이뤄지는 실험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실험이 끝난 후 화학물질의 용기를 잘 닫아도 기화돼 나온다”면서 “환기장치를 이용해 환기를 시키는 것도 한계가 있어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측정 보고서에 따르면 실험실 외부

에서 유입되는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이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보고서에서는 내부적인 요인에는 건축마감재로 쓰이는 각종 페인트, 접착제가 오염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험실내 책걸상, 연구소 기구에 의한 오염, 흡연, 재실자의 향수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공기 중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환기시설을 설치하거나 일정 주기로 실험실을 환기시켜야 한다.

이에 대해 시설과 담당자는 “이번에 실시된 실험실 공기질 측정은 외부업체에 맡겨서 진행된 것”이라며 “내년 중으로 자체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해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지 기자

# 제주학 전국학술대회 성황리 개최

## 제주학 연구의 성과와 과제 다양한 주제, 심도깊은 토론

제주학회 제36차 전국학술대회가 지난 18일 국제교류회관 제1·3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제주학회(회장 김진영 사회학과 교수)가 제주발전연구원(원장 양영오), 탐라문화연구소(소장 윤용택 철학과 교수)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대회는 ‘제주학 연구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그동안 이뤄진 제주학 연구의 성과를 분석, 평가하고 앞으로의 제주학과 제주사회의 발전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열렸다.

학술대회는 총 5세션으로 구성됐으며 각 세션별로 발표와 토론을 한 후 개인발표가 이뤄졌다. 제1세션에서는 현길인(한양대) 명예교수, 전경수(서울대) 교수, 노홍길(해양대) 명예교수가 분야별로 제주학 연구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각각 기조발제를 했다. 제2세션에서는 역사, 관광, 무속, 신화, 분야에 대해 각각 김동진(사학), 장성수(관광개발), 김성례



지난 18일 국제교류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주학회 전국학술대회에서 주영하(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제주 음식문화 연구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서강대) 교수와 양영수(사법대학) 명예교수가 주제 발표에 나섰다.

제3세션에서는 주거문화, 동물, 음식 분야와 관련해 각각 김태일(건국학) 교수, 오홍식(생물학), 주영하(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발표했다. 제4세션에서는 지역학의 연구 동향과 과제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오재환(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원) 센터장과 문순호(제주발전연구원 제주

학연구원) 센터장, 강봉룡(목포대) 교수가 발표했다. 제5세션에서는 개인발표와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김진영 회장은 “제주발전연구원, 탐라문화연구소와 공동주최로 연구분야의 협력과 소통이 이뤄졌다”며 “제주학의 연구성과를 검토해 제주의 현재와 미래에 학문적으로 기여하는 계기가 됐다”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수습기자



지난 18일 광주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제1회 전국 교육대학 예비교사 좋은 수업 탐구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교육대학 학생들.

## 교육대, 전국예비교사 탐구대회 휩쓸어

## 오혜련, 김지현씨 1등급 받아 교과부장관상

교육대학 학생들이 지난 18일 광주교육대학교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제1회 전국 교대 예비교사 좋은 수업 탐구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제주대 교육대학을 비롯해 전국 10개 교육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학생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수업 실연 부문과 수업 비평 부문으로 나눠 대회가 진행됐다.

수업 실연 부문에서는 오혜련(초등음악교육전공 3), 김지현(초등미술교육전공 3)씨가 각각 1등급을 받아 교과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또 김영해(초등컴퓨터교육전공 3)씨는 3등급을 받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장상을 받았다.

수업 비평 부문에서는 임광호(초

등체육교육전공 3)씨가 은상, 이은지(초등윤리교육전공 3), 이나래(초등컴퓨터교육전공 3), 조혜연(초등음악교육전공 3)씨가 각각 동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초등 예비교사들의 교실 수업에 대한 관심 제고와 역량 증대를 통해 교원양성의 위상에 어울리는 바람직한 대학 문화 발달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한편, 교육대학에서는 ‘실용정보과학 아카데미 포럼’을 교육대학 교사교육센터에서 다음달 15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는 제주지역 교원 및 예비교사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 컴퓨터교육 실천방안 및 최신 컴퓨터과학 동향을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 공학교육혁신센터 ‘산학연협력’ 대회 교과부장관상

## 도양회 교수 산학연협력 유공자 선정

공학교육혁신센터(센터장 도양회 전자공학과 교수)가 ‘2011 산학연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인력양성 부문 장려상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공학교육혁신센터는 산업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DAUM, ㈜EMLS, 한국중부발전㈜, STX

엔지니어, 금호산업㈜ 등 총 5개 기업을 참여토록하고, 기업체 임원을 겸임교수로 위촉해 직접 강의토록 함으로써 수요자 중심 교육이 가능토록 했다.

더불어 재학생-산업체 임직원간 멘토 제도 운영, 산업체 현장실습 및 인턴십 등으로 고용증대 및 산업체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도 했다. 센터

김동현 수습기자

## 스토리텔링학과, ‘이야기 콘서트’ 내달 3일 개최

## 작은음악회 형식의 즐거운 학술대회

틀에 박힌 학술대회를 벗어나 모두가 공감하며 즐길 수 있는 작은 음악회 같은 형식의 학술대회가 마련됐다.

‘2011 이야기 콘서트’가 ‘역사와 문화, 감정과 테크놀로지 씨줄과 날줄로 이야기를 엮어간다’는 주제로 다음달 3일 오후 3시 국제교류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사회교육대학원 스토리텔링학과(학과장 박여성) 주최로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표류 스토리텔링, 음악 스토리텔링, 신화 스토리텔링 등의 다양한 주제 발표를 통해 씨줄과 날줄로 이야기를 엮어 이야기와 예술을 융합한 문화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야기 콘서트 1부는 양진건(스토리텔링학과) 교수의 ‘제주 해양 어드

벤처 콘텐츠를 위한 표류 스토리텔링 개발’을 시작으로 전용문 박사의 ‘용전동굴을 통해본 탐라’, 김진철(석사)씨의 ‘지역문화를 소재로 한 스토리 구성 전략’, 장광남(석사과정)씨의 ‘스토리텔링의 계보학 초고’, 김수미(스토리텔링학과) 강사의 ‘스토리텔링에서 디지털 융합 사례’, ‘함께하는 수다’ 순서로 진행된다.

2부는 김민형(스토리텔링학과) 강사의 ‘지각적 상상력의 산업화-디지털시스템을 중심으로’, 부현주(석사과정)씨의 ‘운동지영감 부처를 낚다’, 강동균(석사과정)씨의 ‘제주 신화 스토리텔링: 디지털 이공 본품이’, 박여성 교수의 ‘음악과 스토리텔링’, ‘함께하는 수다’ 순서로 진행

## ●부속시설 탐방 <10> English Clinic & Writing Center

## 영어수준 진단, 튜터 통해 상담까지

계속해서 듣고 또 들어도 들리지 않는 영어, 계속해서 보고 또 봐도 이해 안 되는 영어. 하지만 어렵다고 손을 떼버릴 순 없다. 제주대 외국어교육원(원장 이기석)은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길러주고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기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English Clinic & Writing Center를 운영하고 있다.

English Clinic & Writing Center는 영어에 흥미를 갖고 실력을 쌓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외국어교육원 3층에 문을 연 센터는 10명의 외교원 강사들로 구성돼 있으며 한국인 강사들은 외국에 유학을 다녀온 경험이 있어 영어는 물론 해외의 전반적인 문화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센터는 현재 Smart English 튜터링과 FLI Level Test를 진행하고 있다. Smart English 튜터링은 튜터가 영어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자신이 도움을 받고자하는 부분에 대해 센터에 머물고 있는 튜터에게 상담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외국어교육원을 찾은 사람들이 원어민과 자유롭게 상담을 받고 있다.

다. 센터에 10명의 강사가 머물고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시간대를 택해 방문하면 된다.

FLI Level Test는 외국어교육원에서 자체 개발한 문제를 가지고 회화, 독해, 어휘, 문법 분야의 실력을 측정하는 진단 평가이다. FLI Level Test는 센터를 직접 방문해 응시할 수도 있지만 외국어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응시할 수 있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기석 원장은 “많은 사람들이 영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로는 알고 있지만 영어를 배우기 위해 행동으로 실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영어에 관한 어떠한 질문이라도 좋으니 센터를 많이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많은 학생들이 대학 시절동안 남는 시간을 잘 디자인해서 영어 실력을 쌓고 남들보다 뛰는 스펙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민성 수습기자

## 뉴스 클리핑

## 임윤규 교수 한국수의공중보건학회장 선출

임윤규(수의학)교수가 지난 11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열린 ‘한국수의공중보건학회 추계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한국수의공중보건학회 제18대 학회장으로 선출됐다.

한국수의공중보건학회는 현재 630여명의 회원과 60여개 후원단

체가 등록돼 있으며, 수의공중보건학회 다수 개최, 교재 발간 등 공중보건분야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임윤규(수의학) 교수

## 승마사업단, 학내외 기관과 업무협약

제주 승마산업 RIS사업단(단장 강민수)이 승마산업 발전을 위해 학내외 기관과 손을 잡고 있다.

사업단은 지난 22일 (주)홍진레포츠(대표 김당기)와 생명과학대학 동물생명공학전공 세미나실에서 사업단의 프로젝트인 ‘녹색자원 기반의 제주형 고부가 승마산업 육성사업’의 상호협력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제품개발과 마케팅을 함께할 계획이다.

강민수 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승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상

호발전의 길을 모색하게 됐다”며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을 위한 승마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사업단은 지난 21일 세미나실에서 제주마산업주식회사(대표 양창우)와 재할승마 전문 교육지도사 우수인재 양성과 승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또 사업단은 지난 4일 승마산업의 활성화와 관광레저 선도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 제주물센터, 맥주제조전문가과정 운영

제주물산업인재양성센터(센터장 이선주)는 맥주제조전문가 단기실무전문가과정을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진행했다.

이번 과정은 실습을 통해 실무적 기술, 지식 등을 습득하고 주류산업의 우수 전문 인력 공급을 목적으로 열렸다.

센터 참여 학생 및 일반인 30명

내외가 참여했으며 독일인인 보리스 데 매조네스(제주브루어리 하우스) 강사가 기기 교육과 실습을 주도했다.

한편, 센터는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학생 중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이번 방학기간에 ‘브루스마스터 과정 장기해의 현장실습’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강민성 수습기자



# 제주대가 앞장서 제주를 승마산업 1번지로 육성

## 특성과 사업단 연장 <6> 제주 승마산업 RIS 사업단

한라산을 수놓는 초록 들판과 목축에 알맞은 기후. 더불어 섬이라는 특성상 질병의 유입이 적은 제주는 건강한 말을 생산해내는 최고의 마산지로 꼽힌다. 제주에서 말은 더 이상 단순한 가축이 아니다. 말고기는 웰빙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말뼉과 말기름도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제주마를 활용한 승마산업은 지역 경제를 이끌어갈 산업으로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제주 승마산업 RIS 사업단(단장 강민수 교수, 이하 사업단)은 국내 최대 마산지인 제주의 장점을 살려 승마산업의 인프라 구축과 인력양성, 승마콘텐츠·상품 개발, 기업지원, 홍보마케팅 등 다방면에서 힘을 쏟고 있다. 사업단은 지식경제부에서 지원하는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에 올해 선정돼 3년간 총 사업비 21억 4700만원을 지원받으며 제주 승마산업의 인큐베이터로 역할을 톡톡히 해나갈 계획이다. 사업 참여기관으로는 프라임기획, 진주소프티노베이션, 삼영관광 아트센터가 있다.

제주에는 승마를 하기에 좋은 환경과 명마들이 많다. 그러나 열악한 승마장 시설과 마케팅 부재, 전문인력 및 관련 프로그램 부족으로 제주의 승마장은 승마인구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실정이다. 사업단은 아직 걸음마단계인 제주의 승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우선 승마산업을 이끌어갈 전문인력들을 기르기 위해 승마교육지도사, 재활승마지도사, 말 생산 CEO 과정을 개설했다. 더불어 평생교육원 강좌로 ‘웰빙승마교실’을 열어 초급반부터 심화과정까지 총 8개반을 운영하고 있다. 승마를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승마초보교육 교재와 관련 콘텐츠들도 개발 중이다.

열악한 승마장 시설의 개선을 위해 기업

지원도 펼치고 있다. 도내 승마장 대부분이 관광승마장이며 시설이 열악해 승마를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사업단은 도내 승마장에서 관광승마와 웰빙승마가 모두 쾌적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4개 승마장을 지원해 환경·시설개선 사업을 벌였다. 더 나아가 내년부터는 도내 대부분 승마장이 쾌적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단은 승마 마니아들이 즐길 수 있는 코스를 개발하기 위해 골프장과 협약을 통해 골프장 주위의 상태마로, 관광마로를 만들려고 구상하고 있다.

## 체계적인 교육과정으로

## 승마인력 양성...

## 승마환경 조성 위한

## 인프라 확충에도 앞장

강민수 단장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보존하며 거기에 말을 접목시켜 다양한 코스를 만들어낸다면 외국으로 나가는 웰빙 승마 마니아들을 제주로 유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승마관광객뿐만 아니라 승마 초보자, 전문가 모두가 쉽게 즐길 수 있는 승마환경을 제주에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승마산업 활성화를 위해 승마용품이나 관련 선물용품도 개발됐다. 삼영관광 아트센터에서는 제주마를 주제로 한 기념품들을



지난 13일 서귀포 표선해수욕장에서 제주 승마산업 RIS사업단 주최로 열린 제6회 웰빙승마대회에서 릴레이 경주를 하고 있다.

만들어 곧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러한 상품들은 사업단의 홍보마케팅 지원으로 더욱 빛을 받고 있다. 프라임기획에서는 브랜드 로고와 홈페이지를 만들어 마케팅에 힘을 쓰고 있다.

사업단에서는 지난달 15일부터 9일간 제주경마공원에서 열린 제주마 축제와 지난달 19일부터 5일간 과천에서 열린 말산업축전에서 홍보부스를 만들었다. 부스를 통해 사업단에 대해 홍보하고 승마와 관련해 개발된 상품들도 홍보했다.

강 단장은 “아직 출시가 안된 승마관련 제품을 홍보하는데 반응이 무척 좋았다”며 “부모님께 상품을 사달라고 조르는 꼬마들도 있어 출시하면 연락을 드리기로 약속하고 방명록에 주소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진주소프티노베이션에서는 승마관련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빠르면 다음달 실용화시킬 계획이다. 애플리케이션에는 승마를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승마지도와 추천승마코스, 승마게임 등이 콘텐츠로 포함된다.

사업단은 승마산업이 활성화된 곳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일본북해도의 마산지를 탐방하기도 했다. 북해도에 있는 재활승마센터부터 시작해 말테마공원 ‘노던호스파크’, 명마를 생산하는 농가 등을 둘러봤다. 지난 13일에는 표선해수욕장에서 제6회 웰빙승마대회를 열기도 했다. 이 대회에는 150여 명이 참여해 기량을 겨루고 승마인들 간의 화합을 이루는 시간을 가졌다.

강민수 단장은 “승마산업 발전을 위해 인력양성, 제품개발, 기업지원, 홍보마케팅 등 4가지 분야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 집중할 계획”이라며 “3차년도까지 승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이후 사업단이 자립을 해서 지속적으로 승마산업의 성장을 위해 맘을 들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분서주.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말처럼 사업단은 승마산업 발전을 위해 바쁘게 한해를 달려왔다. 사업단의 활동을 통해 제주가 세계 승마 마니아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지역이 되길 기대한다.

고용희 기자

## “승마산업으로 FTA 넘는다”

### 강민수 사업단장

-제주승마산업이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이유는?

“제주는 말을 키우기위해 적합한 환경으로 오래전부터 최고의 마산지로 꼽혀왔다. 제주만의 장점을 살려 명마를 만들어내고 승마산업을 육성시킨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말 한 마리를 일 반 고기로 치면 가격이 얼마 안 나가지만, 승용마로 만들면 부르는 게 값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부가가치가 높아진다. 더불어 제주의 경마산업은 매출규모로 보면 세계 10대 선진국 수준이다. 말산업 분야에서는 이제 승마산업을 키워나갈 차례다. 최근 한미 FTA 체결로 감귤이나 한우양돈 분야가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FTA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을 수 있는 승마산업을 키움으로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사업진행의 한계와 어려움은?

“아무래도 사업 1차년도다보니 사업기간이 짧고 노하우가 없어서 어려움이 많다. 하지만 함께 일하는 연구원과 참여기업들이 잘 협력해서 큰 문제 없이 사업을 진행해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승마산업이 걸음마단계인지라 승마장들이 열악하고 승마코스들도 많이 개발되지 않은 점이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승마장을 지원해 환경·시설개선 사업을 벌이고 있다. 승마관련 국내 대회를 제주에 유치하고 나아가 국제 대회도 제주에서 많이 열리게 해서 승마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승마산업이 아직은 열악한 상황이지만



강민수 (동물생명공학전공) 교수

승마산업을 발전시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누구나 승마에 쉽게 다가서고 즐길 수 있도록 제주에서 인프라를 형성해 전국적으로 분위기가 전파되도록 힘쓰겠다.”

-제주승마산업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앞으로 승마산업을 더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끌기 위해 전문인력양성과 좋은 승마환경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다른 곳과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주만의 특성을 살린 브랜드 마케팅을 통해 승마 수요를 제주로 이끌어야 한다.

승마를 하는 이들의 요구에 따라 어린이에게는 친착하고 작은 말을, 젊은이에게는 민첩한 말을 제공하는 등 맞춤형 승용마를 생산·공급해 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사업단에서는 승용능력이 없어 승마산업에서 제외되는 말들까지도 웰빙 마육, 향식품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려고 하고 있다.” 고용희 기자



제주대학교(총장 허향진)는 JDC·제주의소리와 함께 학생들에게 국제화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미래지향적 마인드를 키워주기 위해 대학생 아카데미를 마련했습니다. 국내외 명강사를 초청해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국제교류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대학생 아카데미는 오는 12월 6일까지 총 13회 강좌가 열립니다.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작은 편견도 ‘다문화 가정’엔 큰 상처

### 다문화가 만드는 미래 한국의 힘

### 이자스민 이주여성 배우

다문화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아마도 동남아시아 여성과 농촌,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와 공장일 것 같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다문화에 대해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다문화를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 다문화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그 범주가 매우 큰 것처럼 다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할 때이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가장 무서웠던 것이 4가지였다. 그 4가지는 음식의 가치수, 한국어, 시어머니, 목욕탕이다. 필리핀에서는 한 끼 식사를 할 때 반찬수가 많아야 2가지 정도다. 무더운 날씨와 냉장고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음식을 보관하기가 어려워 반찬가지수가 많지 않다. 그런데 한국의 식사할 때 많은 반찬 가졌을 때 놀랐다. 또 한국어는 한 단어에 너무 많은 뜻이 있어서 배우기가 어려웠다. 시어머니는 한국에 대해서 잘 몰랐던 나를 가르쳐야 하기에 처음 무섭게 느껴졌다.

지난해 영화배우 송강호와 강동원이 주연한 영화 <의형제>에 이주여성 푸이안 역으로 출연했었다. 정말 우연이었다. <의형제>에는 캐스팅 담당자로 참여했다. ‘베트남 신부’로 출연할 배우를 찾아야 하는데, 대사를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결국엔 제작진이 제안해서 일벌레에 출연했다. 나는 첫 영화 출연에서 대사와 이름까지 얻어 기뻐했다. 한국의 인기배우 송강호, 강동원처럼 한 화면에 잡히기도 했다. 하지만 영화 개봉 후 감독님의 인터뷰 기사는 충격적이었다. 그는 ‘사람들은 외국인을 큰 화면으로 보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 한다. 외국인 여성을 타이트하게 잡은 장면이 있었지만 최종 편집 단계에서 먼거리 촬영으로 대체했다’고 했다. 내가 더 큰 화면에 나올 수

도 있었다는 얘기다. 영화에는 괴물에 의거인, 귀신까지 나오는데, 스크린에서 외국인이 나오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외국인들만 나오는 할리우드 영화는 대체 어떻게 보는지 의아했다.

<완득이>도 <의형제> 제작진의 추천으로 오디션을 보았다. 사실 <완득이> 시나리오를 보면서 ‘내가 이 역할을 해도 될까’의 구심이 들었다. 영화 속 완득이 엄마는 너무 답답한 여자다. 완득이 엄마가 꾀먹이 아들을 두고 집을 나가는 설정이다. 아들을 떠난 마당에 왜 그렇게 밖에 살지 못한 건지 아쉬웠다. 현실에서는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많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차마 아이들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인내하면서 사는 엄마들이 대부분이다. 자칫하면 내가 연기하는 인물이 다문화 가정의 엄마들에 대한 나쁜 인식, 편견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완득이>의 결문이 가족의 소중함을 보여주는 내용이라서 출연을 결심했다. 완득이에는 몸이 불편한데다 옥탑방에 살 만큼 가난한 아이들이 등장한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가슴 따뜻한 영화다.

17년 전인 1995년에 한국인 남편을 만나 17년 반의 열애 끝에 결혼해 한국에 왔다. 이후 두 아이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다 이주여성들에 대한 편견을 깨기 위해 방송일을 시작했다. 이후 다문화 가정 네트워크인 ‘물방울 나눔화’를 결성했다.

하지만 왜곡된 다문화에 대한 미디어의 시선은 늘 불만이다. 방송은 웃기거나 울리기나 놀 줄 중 하나이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선감을 전해야 하다 보니 이주여성들은 항상 가난한 나라에서 왔고, 문화, 사회, 언어 부족음자이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는 이미지를 심어 놓는다. 또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왕따이기 일쑤고, 이들의 아빠는 농촌 출신의 노동자이고, 학력이 낮은 데다 경제



이자스민 이주여성 배우

적 능력도 부족하게 비추고 있다. 정부기관이 만드는 공익광고를 보자. 왜 여기 등장하는 여자는 동남아 출신이어야 하고, 허름한 한옥집에 살며, 영상은 잔한 느낌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늘 회색 위주의 세피아 색으로 덮여 있다.

다문화라는 꼬리표가 아쉽다. 처음 다문화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우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구나라는 생각에 반가웠다. 그런데 지금은 기존의 혼혈아와 같이 정상적인 그룹과 구분 짓는 단어가 됐다. 앞으로 사람들의 편견에 균형을 맞추는 일에 노력하고 싶다. 다문화 가정을 언제나 적용하지 못하고, 항상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본다면 주저앉고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짝하고 불쌍하다는 마음이 든다는 이유로 무심코 던지는 잘못된 배려도 많다. 다문화 가정 아이를 둔 부모에게 ‘정말, 잘 키웠다’는 말조차 편견에 기초한 문제의식을 갖고 바라본 것이다. 그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

## 갈망하라, 우직하게 나아가라

### 스티브 잡스처럼 생각하라

### 김영한 창조경영아카데미 대표

애플은 세계 최고로 손꼽히는 기업이다. 애플이 초일류기업으로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스티브 잡스가 있다. 그가 떠나고, 사람들은 그의 업적을 분석하고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모두가 잡스의 성공만을 기억하지만 사실상 잡스는 ‘실패의 달인’이었다. 하지만 스티브 잡스의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그가 ‘스스로 자신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그가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늘 변화를 추구하는 창조력과 사람을 움직이는 카리스마를 지녔다는 점은 분명 성공의 커다란 원동력이었다.

사생아로 태어나 입양아로 길러진 스티브 잡스의 출생 이야기는 유명하다. 공부에 취미가 없던 그는 대학에 입학하고 1학기 만에 중퇴했다. 그러다 첫 번째 기회로, 친구 스티브 워즈니악이 찾아온다. 그는 1976년 애플사 최초의 컴퓨터 ‘애플1’을 설계한 장본인이다. 이 컴퓨터의 상품성을 자신한 스티브 잡스는 그의 마케팅 능력을 발휘한다. 스티브 잡스는 비어버린 차고를 사무실로 삼아 ‘애플1’을 창립한다. 경쟁자가 없던 컴퓨터 시장에서 ‘애플1’과 ‘애플2’는 성공을 거뒀다. 하지만 스티브 잡스는 스스로 개발한 제품이 없다는 것을 늘 콤플렉스로 여겼다. 그래서 그가 ‘애플3’을 개발했지만, 처참한 패배였다. 강력한 경쟁자 IBM이 등장한 것이다. 도전 정신이 투철한 스티브 잡스는 팔의 이름을 붙여 만든 아심작리사(Lisa)를 개발한다. 하지만 디자인만 고집한 높은 가격에 연이은 쓴 맛을 보고 만다. 곧 불후의 역작으로 불리는 ‘매킨토시’를 개발하지만 이 역시 디자인에 집중한 나머지 흥행엔 실패했다. 결국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자신이 고용한 사장에게 쫓겨나는

수모를 당한다. 이후 일본 기업 등에서 거액의 투자를 받은 회사 넥스트(NEXT)를 설립해 애플사에 복수하기 위해 슈퍼컴퓨터를 제작하지만 투자 받은 돈까지 날려버리며 크게 망한다.

스티브 잡스는 왜 계속해서 실패 했을까. 이유는 자신의 독단적인 아이디어만 있었을 뿐 고객의 입맛에 맞는 응용 소프트웨어인 애플리케이션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실패는 스티브 잡스에게서 ‘리더십의 변화’를 이끌어 낸다. ‘집단 지성’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 스티브 잡스가 첫 성공 후 애플사에 복귀할 때 자신을 CEO(Chief executive officer)가 아닌 CLO(Chief listening officer) 즉, ‘최고의 경청자’로 불러달라고 했던 일화는 너무나 유명하다. 애플사의 히트 상품들은 스티브 잡스 혼자 개발한 것이 아니라 최철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 기회를 준 데서 탄생한 것이다. 애플은 포화 상태에 이른 세계 휴대폰 시장에 스마트폰 열풍을 일으켰다. 소비자의 소유하고 싶은 심리를 자극해 블루션을 개척한 것이다. 현대 마케팅의 핵심은 니즈(needs)가 아니라 원츠(wants)다. 소비자가 원하는 걸 정확히 분석해 상품과 연결시키는데 성공했다.

잡스 사후 ‘포스트 잡스 체제’를 이끌어갈 이들 역시 이같이 모였다. 스티브 잡스 후임 CEO인 팀 쿡은 ‘아이팟(iPod)’의 초고속 출시를 이뤄냈다. 아이팟은 8개월 사이에 제품 기획부터 시장 출시가 완료됐다. 수석 부사장(CDO)인 조나선 아이브는 애플 제품의 디자인을 만들어낸 장본인이다. 영국서 자동차 디자인을 전공한 조나선 아이브가 처음 애플사에 올 때만 해도 무명의 디자이너였다. 스티브 잡스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때 창익과 도전, 열정으로 애플을 만들어 냈다. 그가 생전에 꿈꾸던 ‘우주에 위대한 흔적을 남기는 일’을 이뤄내고



김영한 창조경영아카데미 대표

떠났다. 스티브 잡스는 세계를 주무르는 기업의 1인자라는 타이틀과는 어울리지 않게 답소묵하게 수업을 기르고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일 때가 많다. 이런 그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은 단연 뛰어난 그의 창의성 때문이다.

잡스는 2005년 스탠퍼드대 졸업식 축하 연설에서 학교를 떠나 세상 밖으로 나서는 학생들에게 “삶은 유한하므로 다른 사람의 생각에 매몰되는 도그마에 빠지지 말라”며 “자신의 가슴과 직관을 따르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라”고도 주문했다. 그는 ‘늘 갈망하라, 늘 우직하라(Stay Hungry, Stay Foolish)’라는 문구를 자신의 삶의 좌우명이라고 소개하며 “나는 언제나 이렇게 살고 싶었으며 여러분도 이렇게 살았으면 한다”고 연설을 끝맺었다. 우리나라에도 세계적인 제품은 많지만 우리만의 독창적인 제품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이다. 여러분의 열정과 창의로 헤쳐 나가야 한다.



# 고수의 유혹 불법다단계 조심을… 피해보상과 예방법 알아야

## 악슬기고

## 특수거래와 소비자



김정숙(생활환경복지학부) 교수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소비자욕구가 다양해지고 교통·통신수단과 디지털기술이 발달하면서 방문판매·다단계판매 등 특수거래가 발달하고 있다.

특수거래는 점포에 가지 않고 물건을 구매하거나 영업장소의 제약 없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공격적 판매방식을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구매를 강요하거나 기만적 판매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하며, 직접적인 대인판매와 혈연·지연을 활용한 연고판매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

### 1. 방문판매

방문판매는 상품에 관한 정보제공 및 청약이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와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장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와 대면해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를 유도하여 계약이 성립됐으면 방문판매에 해당된다. 청약을 유인한 방법이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방문으로 이루어졌는지의 여부가 판단기준이 된다.

일반적인 판매방법은 점포에 상품을 진열하고 소비자 방문을 기다리지만 방문판매는 판매자가 적극적으로 소비자를 찾아가는 판매방법이다. 소비자집장에서는 정보수집에 필요한 시간이나 비용을 절감하고 점포에 가지 않고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으며, 판매자집장에서는 영업소 설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방문판매자와 소비자는 정보력과 협상력에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 방문판매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① 판매원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불만을 처리하기 어렵다.
- ② 상품지식·정보가 적어 거래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판매원 말만 듣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구매권유에 현혹되어 충동 구매할 가능성이 많다.
- ③ 계약서나 약관을 교부하지 않거나 거

래조건이 소비자에게 불리할 우려가 많다.

- ④ 판매자 주도하에 강압적 방법이나 허위·과장 설명이 행해지기 쉽다.
- ⑤ 상품이 판매원 설명이나 견본과 다르거나 불만이 있어도 대항하기 어렵다.
- ⑥ 계약해지 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대하여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

### 2. 다단계판매

다단계판매란 판매상품을 구매·사용해 본 소비자가 판매원이 되어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 또는 구매를 권유하고 이러한 권유를 받은 소비자가 다시 판매원이 되어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 또는 구매를 권유하는 과정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판매형식이다. 판매원에게 소매이익과 후원수당 등 일정한 이익을 부여하면서 판매원 가입이 순차적·단계적으로 이루어져 상위판매자와 하위판매자 사이에 3단계 이상 단계가 형성된다. 기본적으로 무점포판매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소비자를 상대로 판매활동을 하기보다는 판매조직에 가입시켜 하위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피라미드판매는 다단계판매와 구조나 판매방법이 비슷하여 현실적으로 구별하기 어렵다. 다단계판매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제한적으로 양성화된 판매방법이나 피라미드판매는 불법다단계판매이다. 다단계판매는 회원가입비가 없고 재고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상품교환·환불이 가능하고 판매자가 구매자이다. 그러나 피라미드판매는 품질에 비해 고가로 상품가격을 책정하고 판매원에게 상품구매나 하위판매원모집을 강요하며, 판매원 수입이 판매실적보다 하위판매원모집에서 발생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불법다단계판매업자는 대학생이나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하위판매원 모집을 통해 단기간에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하며 사행심을 유발하고 회원가입을 권유한다.

이러한 광고나 설명에 현혹되어 피라미드판매에 빠지게 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직급유지나 후원수당을 수령하기 위해 학자금이나 카드대출을 하거나 사재를 빌려 물품을 구입했다가 결국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문제가 발생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불법다단계판매의 피해예방 요령은 다음과 같다.

- ① 고수익보장 아르바이트·실무경험 등 일자리제공 유인을 받을 경우 직접판매·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을 통해 등록된 다단계 판매회사인지 확인한다.
- ② 등록업체이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다단계 판매와 피라미드 판매의 비교

구 분	다단계판매	피라미드판매
가입비용	· 연1만원미만 가입비· 무료	· 가입비· 교육비· 상품· 교재구입비 등 강요
상품	· 중저가 소비재	· 저질 고가제품
업무구조	· 부업 출발 유도	· 전업으로 사업하도록 강요
후원수당	· 구매· 판매실적· 교육수당 지급	· 회원모집을 통해 수당지급
구매유도	· 상품구매 자유의사	· 판매원등록 시 일정량 상품 구입· 강제구매액 설정· 승급 벌미 강제구매 유도
수익발생	· 제품판매	· 판매원등록 행위
재고부담	· 재고부담 강요 없음	· 강제· 의도적 재고부담 규정
확장구조	· 하위판매원 확보의무 없음	· 하위판매원 확보의무 부과
조직	· 개방적· 자유로운 가입· 탈퇴	· 배타· 폐쇄· 인위적 구조· 탈퇴 자유롭지 못함
환불	· 환불규정 명시	· 환불규정· 재고상품 반환 규정 없음
피해보상	· 공제조합가입· 피해보상 가능	· 공제조합 미가입· 피해보상 불가능

불법 다단계판매의 특징

- ① 다단계판매업 등록증·등록번호가 없거나 불명확하다.
- ② 후원수당 산정·지급기준 등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
- ③ 다단계판매원등록증·수첩 등을 교부하지 않거나 부실한 것을 교부한다.
- ④ 1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넘는 상품을 판매한다.
- ⑤ 반품·환불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지켜지지 않는다.
- ⑥ 후원수당비율이 지나치게 높다(공급가격의 35%초과).
- ⑦ 폭력·강압 등 위협적인 수단으로 가입을 유도한다.
- ⑧ 가입비로 1만 원 이상 요구하거나 5만 원 이상 물건을 구입하게 한다.
- ⑨ 3만 원 이상의 판매보조물품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 ⑩ 판매할당금액을 충족해야 판매원자격을 유지하고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다.
- ⑪ 판매원을 가입시키는 행위로 수입이 발생된다.
- ⑫ 사업장주소·전화번호를 자주 변경한다.
- ⑬ 유사상품에 비해 고가로 거래한다.

매출·후원수당 등 정보를 확인한 후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

- ③ 교육·합숙을 강요할 경우 탈퇴의사를 확실히 밝히고 빠져 나온다.
- ④ 제품을 사용하거나 멸실 또는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⑤ 학자금대출 등 무리한 자금마련은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할 수 있다.
- ⑥ 미등록다단계판매업체는 불법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경찰·관할 시·도에 신고한다.

### 3. 청약철회(계약해지)

방문판매나 다단계판매의 경우 판매자의 기만적 사술이나 구매권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구매하기 쉬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기간 이내에는 조건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Cooling Off)을 소비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구매에 대해 냉정하게 생각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서를 교부받거나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이다.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주소가 기재되지 아니한 계

약서를 교부받은 경우 또는 주소변경으로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주소를 안 날부터 14일 이내이며, 제품내용이 표시·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는 제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이다. 또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기간 경과와 관계없이 법정대리인(부모)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청약철회 의사표시는 서면 외에 구두나 전기·통신매체를 이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구두나 전화로 청약철회를 할 경우 의사표시 유무에 다툼이 있거나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므로 우체국의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여 서면으로 하는 것이 안전하다.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면 소비자와 판매자는 원상회복의무를 갖는다. 소비자는 공급받은 상품을 반환하고 판매자는 상품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대금환급을 지연하면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반환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하며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기술이 아니라 인간이다!

### 서평

우리 학교에서도 IT분야의 학생들이 1000페이지에 달하는 스티브잡스의 전기기를 구입해 들고 다닌다. 스티브 잡스의 사망소식은 이념과 종교를 뛰어넘어 세상에 파졌고 많은 이들이 그가 이뤄왔던 것들을 조망하며 그를 진정으로 추모하고 있다.

스티브 잡스가 과연 그렇게 주목을 받을만한 사람인가의 논란은 중요하지 않다. 애플과 맥, 아이폰과 아이패드 앞에서 스티브 잡스라는 한 인간에 주목하는 모습, IT 강대국을 자처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IT가 떠올리게 하는 것은 인간인가? 기술인가? 제이 엘리어 전 애플 수석부사장이 얼마 전 서울에서 열렸던 세미나에서 “삼성의 광고를 보면 하드웨어만 얘기하고 있다.”라는 지적 속에 담긴 의미와 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듯하다.

『거의 모든 IT의 역사』라는 책을 서점에서 본 순간 그 책의 내용보다는 ‘아! 내가 정리해서 세상에 내놓고 싶었던 책이었는데...’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전통적인 모든 학문들은 그 진보와 발전에 대한 역사를 다룬다. 다른 학문에 비해 IT의 역사는 매우 짧으나 그토록 짧은 시간에 수억 년의 발전에 견줄 수 있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미래를 보려면 과거를 살펴야 한다고 했던 것처럼 그동안의 IT의 역사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며 우리가 배울 것을 찾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IT를 전공하는, 정확히는 컴퓨터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현재의 IT를 만든 과정과 인물에 대해 살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책을 주목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우리나라 IT의 문제점을 제대로 짚고 있기 때문이었다. 안철수 교수와 비슷하게 의대를 졸업하고 IT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관동의대 명지병원 융합의학과 정지훈 교수는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IT 산업을 움직이는 것이 복잡한 과학과 기술이라 생각하고, 컴퓨터와 논리의 싸움, 돈과 비즈니스의 관점으로만 바라본다면 본질적인 부분을 꿰뚫어 볼 수가 없다. 산업에서 파생되는 제품과 서비스는 기술적인 것이지만, IT 산업에 종사하고 새로 만들어진 기능을 이용하는 것은 모두 사람이기 때문이다. 결국 사람과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



거의 모든 IT의 역사  
정지훈 지음

해가 없다면 제대로 된 철학을 만들 수도, 무모한 도전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할 수도 없다.’

그의 지적과 같이 정부 주도의 막대한 인프라 산업과 이를 독점한 일부 대기업의 서비스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IT 산업이 성장되어 오다보니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종되어 버린 것이다. 스티브 잡스를 꿈꾸는 우리나라의 많은 IT 인재들이 전부 애플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LG와 같은 대기업 입사에만 치중하는 현실은 그 자체가 역설이고 모순이다. 석유 등의 천연자원이 부족해 어려서부터 귀가 따갑게 들어오던 ‘우리나라는 인재가 자원이야.’라는 말처럼 우리의 젊은 IT 인재들이 스티브 잡스가 그랬던 것처럼 과감히 창업하고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져야 한다.

최근 IT 분야 인재의 간간이 되는 초중등에서의 컴퓨터교육이 설 자리조차 잃어가고 있다. 전국의 16개 시도 가운데서도 우리 제주도의 컴퓨터교육 현실은 정말 암울하기 그지 없다. 컴퓨터교육을 필수로 하고 있는 우리의 IT 주요 경쟁국인 미국, 영국, 일본, 인도, 이스라엘은 차치하고서라도 사이버군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북한도 컴퓨터교육을 필수로 하고 있다.

그나마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주재의 TF팀이 구성되어 초중등 컴퓨터교육 정상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하니,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정보교육진흥법’의 제정과 함께 진정한 IT 강대국의 기초가 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IT가 위기다. 그 해결은 바로 인간, 우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조정원(컴퓨터교육) 교수

## 2012학년도 전과시행 사전 안내

### 1. 전과대상

- 가. 2012년 제1학기 2, 3학년 진급예정자와 복학예정자
- 나. 2012년 제1학기 재학 또는 복학예정인 상업교육과 학생

### 2. 전과구분

- 가. 모집단위간 전과(이하 ‘일반전과’라 함)는 학사과정의 제2학년 또는 제3학년 학생이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으로 입학정원(전공 또는 학과별 배정정원)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사범대학으로의 전과는 모집단위별 재직인원이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허가한다. ※ 모집단위간 전과는 주간에서 주간으로, 야간에서 야간으로의 전과를 의미함.
- 나. 모집단위내 전과는 모집단위 내에서 전공 또는 학과간 이동으로 모집단위에서 전공 또는 학과가 배정된 이후, 배정인원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주·야간 전과는 주간과 야간과정에서 모집단위 정원보다 재적생수가 적은 경우에 한해 재적자수 범위만큼 주간과 야간 과정간 전과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 라. 모집단위 폐지에 따른 전과는 2012년 3월에 재학 또는 복학예정인 상업교육과 학생에 대하여 전과의 정원에 관계없이 타 모집단위로의 이동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단, 의예과, 의학과, 수의예과, 수의학과와 간호학과로의 이동은 허용하지 않는다.)

### 3. 전과 허용인원

- 가. 일반전과는 전입과 전출 각각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20% 범위 내이며, 수의예과 및 간호학과는 정원보다 재적생수가 적은 경우에 한하여 정원에 미달된 범위에서 전입 허용
- 나. 사범대학의 전과는 모집단위별 재직인원이 입학정원의 110%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미달된 범위 내에서 전입 허용
- 다. 모집단위내 전과는 전공 또는 학과 배정인원의 20% 범위 이내에서 대학별 모집단위의 결정사항에 의함
- 라. 주·야간 전과는 산정된 여석 인원

### 4. 전과 제한사항

- 가. 2학년 일반전과 실시 후 전과 허가인원이 전출정원에 도달한 학과(전공)는 익년도 3학년 전과에 대하여 전과원서를 교부할 수 없음
- 나. 일반학과에서 수의학과, 교육대학으로는 전과할 수 없음
- 다. 전공을 예약하고 입학한 자는 전과할 수 없음
- 라. 재학 중의 전과는 1회에 한함

### 5. 전형방법

무시험 전형으로서 2011학년도 제2학기까지의 학업 성적(계절학기 성적 포함 휴학자는 기 이수한 성적)순에 의하여 선정하되, 예·제능계와 사범대학으로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인 경우에는 희망 학과별 실기고사·면접을 병행하여 실시함. (상업교육과 학생중 사범대학으로의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은 면접고사를 실시하지 않음)

#### ◇ 전출자 제한 ◇

- ① 전형방법에 의거 선발한 허가예정 인원이 소속 모집단위별(학과 및 전공) 입학정원의 20%이상일 경우에는 각 학과의 전출제한 기준에 의거 제한 함
- ② 학과의 별도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허가예정자에 대하여 성적에 따른 선발순위로 20%이내까지 합격처리한 후
- ③ 전입인원에 미달된 인원만큼 미달학과(전공)의 지원자에 대하여 추가 합격처리함

### 6. 원서교부 및 접수

- 가. 원서교부 : 2012. 1. 16(월) ~ 1. 18(수) 소속 학과
- 나. 원서접수 : 2012. 1. 16(월) ~ 1. 18(수) 교무처 학사과
- 다. 면접·실기고사 : 2012. 1. 30(월) [세부일정 별도 공지하며, 학사일정상 변경될 수 있음]

### 7. 전과 허가

- 가. 전과 허가자 발표 : 2012. 2. 3.(금)
- 나. 전과 허가일자 : 2012. 3. 5(월)

### 8. 수강신청

전과 허가자는 전과한 학과(전공)의 교과과정에 따라 수강신청 또는 전적학과의 기 수강신청 사항 변경조치

### 9. 기타사항

- 가. 전과가 허가되면 취소할 수 없으며, 다만 복학예정자 중 전과가 허가되었으나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2012. 3. 9.)내에 복학을 하지 않은 경우는 전과가 취소됨.
- 나. 전과로 인하여 차액이 발생하는 등록금은 차액을 징수 또는 반환함
- 다. 전과가 허가된 학생은 전과한 학과(전공)에서 필요한 졸업학점 및 교과과정 과점별 이수학점을 적용받음.(2009 이후 입학자 및 동일학번으로 1학년부터 재학하는 학생은 전과한 학과의 교양이수기준을 적용받음)
- 라. 전과 이전에 이수한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되며 기 이수한 교과목 중 전과한 학과의 전공교과목이 있을 경우 전공학점으로 인정함.

###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무처 학사과(☎754-20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이알투어(주) 제주시 연동 2312-1, 국외여행업등록 94호, 제주도의 토종기업, 34년 전통 제주렌트카 자매회사, 해외여행, 국내여행, 렌트카를 포함한 광범위한 영업  
 담당: 문인관 [일어일문학과졸업] H.P: 010 - 4693 - 2394  
 TEL. 748-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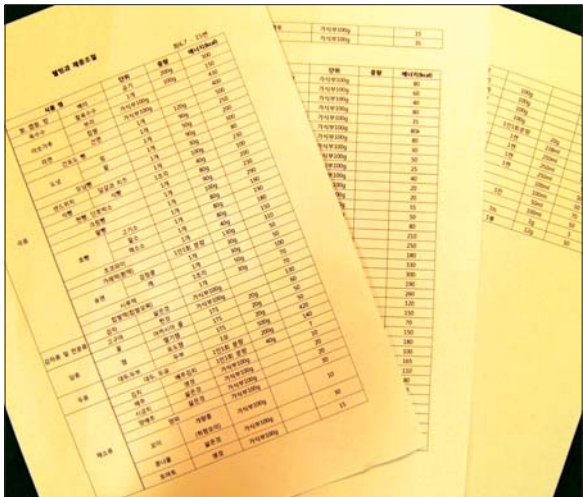


# 캠퍼스 별난체험 이색과제물 “남다른 배움이 있다”

과제 쓰나미가 몰려온다. 과제에 시달려 몸은 파김치마냥 축 처지고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내려앉는다. 끝마친 과제는 하나도 없고, 과제 제출일은 하루하루 다가올 뿐이고, 내 심장은 쿵쿵쿵쿵 거리고 있을 뿐이고...

그래도 그 중에 유일한 희망은 ‘이색과제’이다. 친구들과 함께 즐기며 할 수 있었던 과제, 교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과제 그게 바로 이색과제이다. 과제 쓰나미 속에서 나에게 활력을 불어 넣어준 한 줌의 소금 같은 이색과제에 대해 알아보자.

<편집자주>



‘웰빙제중조절’ 수업 중 ‘다이어트’ 과제를 위해 나눠준 칼로리 표



‘말과 웰빙여가생활’ 수업 중 과제인 ‘승마체험’을 하는 모습



‘사회인과 대인관계’ 수업 중 팀별 과제인 ‘이색봉사’ 중에서 추위 때문에 죽어가는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 털모자 따서 보내기를 한 팀의 발표 모습.

## 나의 식습관을 개선해 주는 ‘다이어트’

요즘 많은 학생들이 질 나쁜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거나 심지어 끼니를 거르기까지 한다. 학생들의 이런 심각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양양한(식품영양학과) 교수가 나섰다. 양 교수는 ‘웰빙제중조절’이라는 과목에서 ‘다이어트’ 과제를 냈다.

양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하면 결식을 생각하는데 그것은 정말 잘못 생각하는 것”이라며 “다이어트는 결식이 아니라 적절한 운동과 규칙적인 식사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이 결식을 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해서 다이어트 과제를 냈다. 학생들이 과제를 하면서 규칙적인 식사와 적절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과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양 교수가 나눠준 칼로리 표를 참고해 음식을 먹고, 자신에게 필요한 칼로리보다 더 많은 음식을 먹으면 그만큼 운동을 해서 기록한다. 말로만 들으면 굉장히 쉬울 것 같지만 행동으로 실천하자니 매우 어려운 일이다.

양 교수는 “자신도 직접해봤지만 음식을 조절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며 “자기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기록물을 보여줬다. 2주 동안 삼시세끼를 다 챙겨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체중은 6Kg이나 감소했다. 진정한 다이어트로 체중감량에 성공한 양 교수의 얼굴에서는 반짝반짝 빛이 났다.

양 교수는 “학생들이 결식만은 안 했으면 좋겠다”며 “규칙적인 식사를 통해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요즘 식습관이 좋지 않은 학생들이 많다”고 말하며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염려하듯이 학생들을 걱정해줬다. 분명 많은 학생들이 양 교수의 우려를 알아차리고 그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올바른 식생활을 해나갈 것이다.

## 막힘 없는 대인관계를 위한 활동 ‘이색봉사’

핵심역량 과목인 ‘사회인과 대인관계’를 강의하는 문호남 강사는 팀별 과제로 ‘이색봉사’를 냈다. 이 과제는 팀별로 자유롭게 주제를 정해 봉사를 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벌인 이색봉사는 정말 다양했다. 길거리에서 파손된 인도를 찾아 담당 기관에 개선 요청하기, 외국인들에게 독도 알리기, 추위 때문에 죽어가는 아프리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털모자 따서 보내기 등이 있었다.

독도 홍보 봉사를 한 박현(국어교육 1)씨는 “독도 영유권 문제를 외국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친구들과 함께 독도 홍보 봉사를 했지만 어려운 점도 많았다”며 “하지만 혼자서 아닌 팀이었기에 여러 문제가 생길 때마다 친구들과 대화를 하며 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문 강사는 “봉사를 계획, 진행하는 단계에서 많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학생들이 협력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스스로 리더십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과제의 목표”라고 말했다.

## 말(馬)을 느끼게 해주는 ‘승마체험’

이제 더 이상 말(馬)을 말(言)로 배우지 않는다. 말(馬)을 직접 말(馬)로 가르쳐주는 교수가 있다.

‘말과 웰빙여가생활’을 수업하는 강민수(생명공학부) 교수는 ‘승마체험’을 과제로 내고 있다. 승마장에 가서 직접 말을 타고 그 느낌을 보고서로 작성하는 과제이다. 그는 “학생들이 말과 직접 접촉하면서 말에 대한 느낌을 충분히 만끽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학생들이 말을 직접 타면서 이론으로 배웠던 것을 실감나게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승마 체험을 과제로 낸 것이다.

이 수업을 듣는 문성후(생명공학 2)씨는 “제주도의 말 산업 발전에 대비해서 말을 직접 체험하며 배울 수 있어 즐겁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학생들이 우리 대학을 졸업한 뒤에 자신있게 ‘나 승마할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흐뭇하게 웃었다. 그는 제주대 학생들이 말을 타고 넓디넓은 초원을 달리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는 듯하다.

## 나의 뿌리를 통해 나를 재발견할 수 있는 ‘나의 가족사 채록’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면 나를 세상에 있게 해준 우리 가족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당연한 일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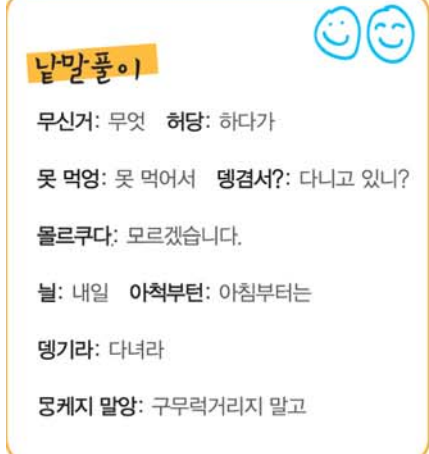
‘재일제주인의 삶과 정신’을 수업하는 허영선(전 한국민예총 제주도지회장) 강사는 ‘나의 가족사 채록하기’를 과제로 냈다. 허 강사는 “우리는 우

리의 뿌리를 알 시간도 없이 황급히 세상 밖으로만 나가려하고 있다”며 “가족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는 것은 육성의 현대사를 듣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허 강사는 학생들이 자신의 조부모님, 부모님의 기억과 경험을 직접 듣고 기록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 이런 과제를 냈다. 가족사 채록을 통해 윗세대가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시대와 개인의 삶을 그려볼 수 있는 것이다. 허 강사는 “이번 과제를 하면서 자신의 삶의 목적과 자신이 살아가야 할 땅, 자신이 찾아야 할 가치도 분명 정

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큰 교훈을 줄 과제를 하면서 학생들의 삶이 좀 더 풍부해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요즘 대학가에는 학생들이 직접 발로 뛰며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과제들이 많다. 새로운 것을 체험하며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과제들이다. 다른 과제들에 비해 시간과 노력이 좀 더 들더라도 과제 속에 담겨있는 깊은 뜻을 생각하며 즐겁게 해보자. 놀면서 배우라! 배우면서 즐겨라! 이색과제를 위한 팀이다. 강민성 수습기자



라운은 올집다는 의미의 순수 우리말입니다.

# 제주와 더불어 성장하는 기업 라운

**라운은 제주의 기업입니다.**  
**제주 현지 법인으로서 지방 세정발전과 지역 농특산물을 구매 확대,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라운골프클럽 - 라운목장 - 더마파크 - 제주라운투어에 이어  
최근 문을 연 934세대의 라운프라이빗타운도  
임직원 287명중 지역인력을 95% 이상 순차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라운은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의 디딤돌로,  
지역사회와 함께 커가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RAON GOLF CLUB  
JEJU  
라운골프클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산 18번지  
TEL 064-795-1000 FAX 064-795-1001

RAON The馬PARK  
더마파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월림리 산 8번지  
TEL 064-795-8080 FAX 064-795-8081

RAON TOUR  
JEJU  
라운투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협재리 149-6번지  
TEL 064-795-8008 www.raontown.com

RAON PRIVATE TOWN  
JEJU  
라운프라이빗타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협재리 149-6번지  
TEL 064-795-8008 www.raontown.com

레저군 라운레저개발(주) / 라운랜드(주) / 라운목장 / 제주라운투어(주)    건설군 라운건설(주) / 라운산업개발(주) / 라운토건(주) / 에버캠도시개발(주)